



서울대학교 뉴욕지역 골든클럽 회보

GOLDEN CLUB NEWSLETTER

JANUARY 2025

WE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VOL. 153



뉴욕동창회 2024년 송년회 개최

서울대학교 뉴욕지역동창회(회장 김정필·이사장 권정덕)는 7일 뉴저지 포트리에 있는 더블트리호텔에서 2024년 송년회 겸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정필 회장은 더욱 화합되고 늘 만나기를 고대하는 동창회로 만들자고 새해 목표를 제시했고, 정해민 상임고문은 축사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가(이병기 작사 현재명 작곡)에 나와 있는, 씩씩하게 나아가는 젊은 오누이들이 지속적으로 합심하여 관심을 가지고 동참하면 더욱 더 융성하는 서울대학교와 뉴욕동창회가 된다는 확신을 갖자.”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160여 명의 동문과 가족이 참석한 행사는 동문 유학생과 동문 자녀 6명에게 각각 장학금 3,000달러씩을 전달하는 수여식을 갖고, 동문들로 구성된 합창단(단장 정경희·지휘 변진환·반주 한빛나)과

동문 음악가 연주회를 갖는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여한 음악가는 메트로폴리탄 무대에서 현역으로 활동 중인 테너 박종현, 메네스에서 연주자 과정 중에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진요셉, 줄리어드 석사 과정 중인 바리톤 김선진, 파이노 김나형의 공연은 열화와 같은 관객의 환호를 끌어내며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한국 왕복 비행기 티켓 (손경택 회원 기증)과 랩탑 컴퓨터(권정덕 이사장 기증), 동문들이 기증한 다수 상품이 푸짐하게 준비된 경품 순서와 장기자랑은 예정된 행사 시간을 훌쩍 넘기도록 참가 신청자가 몰려 열기를 품어냈다.



2025 Golden Club 신년교례

2025년을 시작하는 신년교례회가 3월 22일 (토)에 열립니다. 이번에는 RT 80번과 17번이 교차하는 요지에 있는 Hilton Hotel로 장소를 변경하였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사에 특별히 회원 여러분들의 순서 참여와 의견을 모아서 함께하는 즐거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날짜: 2024년 3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

장소: Hilton Hotel, Hasbrouck Heights/Meadowlands
650 Terrace Ave, Hasbrouck Heights, NJ 07604

회비: 1인당 \$120

2025년 새해가 밝았다!

■ 정해민(법 55) 상임 고문

골든클럽 회원 여러분 그리고 뉴욕지역 동창회원 여러분! 2025년 대망의 새해에 해가 막 솟아 올랐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염원하시는 소원을 다 이루시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4년 가까이 홍종만 회장님의 각고의 노력과 뉴스레터 편집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님들의 아이디어와 기획과 협조, 거기에 무엇보다도 회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력으로 골든클럽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한사람으로 뿌듯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준행회장님의 끊임없는 후원과 과거에 여러해 동안 이루어 놓으신 반석과 같은 기초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므로 다시 한번 이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해의 소망을 사자성어(四字成語)로 말하라고 하면 저는 “사필귀정(事必歸正)”을 들겠습니다. (주석: ‘모든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게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나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Happy New Year! 감사합니다.

신년인사

■ 골든클럽 회장 홍종만

시간이 유수처럼 흘러 어느덧 202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010년, 골든클럽의 막내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지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활기찬 모습으로 야외활동을 함께했던 선배님들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그분들이 남겨주신 따뜻한 정과 추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매달 진행되었던 골프 대회 시상성적,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함께했던 하이킹, 그리고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한국방문 여행 등등, 골든클럽에서 보낸 시간들은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머틀비치 골프 여행에서 저녁마다 한방에 모여 술잔 주고 받으며 맛있게 나누던 공동식사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됩니다. 그때 나는 이야기와 웃음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죠.

하지만 세월은 흐르고, 우리 모두는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직도 마음은 젊지만 저도 80에 접어들었으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골든클럽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장직을 수행한 지난 4년간 사무총장으로 시작하여 클럽의 실질적인 운영을 전담해 온 김정필 부회장이야말로 골든클럽을 이끌어갈 적임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아직은 젊은 패기와 풍부한 경험을 겸비한 인물로, 우리 클럽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일부 회원분들께서 뉴욕 동창회와 골든클럽 회장직 겸임에 대한 우려를 표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서로 다른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뉴욕 동창회는 우리의 뿌리이며, 골든클럽은 동문들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공간입니다. 두기관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우리는 더욱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다가오는 3월 22일 신년교례회에서 김정필 부회장이 제8대 회장으로 공식 선임되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회장단과 함께 골든클럽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기대하며, 회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뉴욕동창회 집행부 임원단



2024년 장학생 수여식



뉴욕동창회 합창단 공연 (지휘 변진섭 반주 한빛나)



가정대 동문 일동



약대 동문 일동



젊은 음대 동문 테이블



12월 19일 이준행 명예회장님을 모시고 가진 운영위원 송년회

2024년 우수작품 선정

지난 1년동안 많은 분들이 귀한 원고를 보내주셨습니다. 뉴스레터에 실린 각 원고들을 보니 회원들의 삶과 소소한 행복들이 듬뿍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모든 원고의 수준이 거의 비슷하여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중 다수의견을 참조하여 다음 2작품을 선정했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와 겸손: 천병수

Myrtle Beach 골프여행: 권정덕/홍선경

뉴스레터 2024년 합본은 옆의 QR code 링크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임호순 (공대52)

어린시절

우리가족외의 친지들은 서울에살고 있었지만 아버님이 다니시던 외국계 회사의 소재지가 현재 북한 평양인 탓에 나는 평양에서 태어나 어린시절 보내게도였다.선친은 일찍이 선교사가세운 영어학교에서 신문물을 접하고 평양에서 Corn Oil, Corn Starch등을 생산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던 것이었다. 어릴때 본 기억이지만 대동강변 등 평양이 경치도 아름답고 낭만이 있는 곳이었다. 일본의 압제시대를 마치고 해방이 되었을때 소련군이 평양에 진입하고 김일성 환영대회에서 소련군대가 많이 보았던 기억이 있다. 38선이 그어지고 남한과 북한이 갈라질때 온가족이 서울로 이사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중/고등학교 는 서울에 소재하는 휘문중/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다.

청년 이후 시절

서울대공대 건축과를 졸업하게되었다. 대학 졸업후 공군 갑종장교로 임관하여 시설장교로 복무시 대구 항공창 건설에 선임장교로 근무하였다. 대규모의 건설공사이기에 미국의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며 원조를 받기위한 신청서를 제출할때 미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 및 토목 관련 여러가지 까다로운 Issue에대하여 접하게 되었고 원조 승인후 공사 감리/감독하는 과정에서 선진국의 manual 에대한 지식과 함께 복잡한 대형공사 시공현장 과정을 접할수 있었다.

제대후 군대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그만 건설회사를 설립하여 운용하였다. 당시에는 서울시내의 큰공사에는 강패들이 관여 하고 있었기에 영업환경이 농녹치 않았고 어렵게 방파제공사를 따내어 시공하였는데 예기치못한 태풍으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을 경험하고 회사 부도라는 실패를 보았다.

한국화약이 건설회사를 신설하여 서울 프라자 호텔건설에 참여할 때 그 그룹에 합류하여 일을 하게되었다. 일본 차관을 도입하여 건설하는 프로젝트였기에 일본기업의 현장감리를 받게되었고 자연스럽게 일본 선진시공의 체계적 시스템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수 있었다. 프라자 호텔 건설종료후 럭키개발 중동담당으로 join 하여 Riyadh 공항, Islam종합대학 , Riyadh종합대학 신설공사등 중동한 북판에서 한국경제에 큰보탬이되는 조그만 역할을 했다는 긍지를 가지게된다.

결혼

공군 복무시절 제대하기 직전에 동문인 시설장교후배의 소개로 현재의 내 처를 마났고 교제후 결혼하였다. 처음에 의대 졸업후 인턴/레지던트 시절에는 힘들었지만 산부인과 의사로 개업후에는 경제적으로 숨통이 트였고 나의 직장생활 및 사업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미국생활

중동전 및 월남전 이후 70년대에 미국에서 외국회사들에 대한 우호적인 이민정책에 힘입어 내 처는 일찍이 도미하여 터전을 잡았다. 당시에 나는 중동에 일을 하고 있었기에 기러기 아빠 생활로 상



당기간 보냈다.

약10년간의 중동 근무 후 미국으로 건너와 가족들과 함께 살게되었다. 뉴욕 플러싱에서 건축업에 뛰어 들었다. 처음에는 날근집을 부스고 새집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여 재미를보았고 이후 사업규모를 키워서 연립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을 하였으나 풍족치 못한자금과 건축기간이 2년으로 장기간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금융위기로 인한 주택가격의 폭락으로 엄청난 손실만 떠 안게되는 결과가 되었다.

자녀 및 노학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현재 자녀는 1남 1녀가 있다. 90인생을 살다 보니 건강이 썩 좋지 않아 현재 20-30분 정도 지팡이를 가지고 걷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 걸으면서 여러가지 생각들을 하게된다. 얼마 남지않은 나의 인생에 잘죽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다. 도리켜보면 뭐하나 제대로한것이 없으나 그래도 한평생 변화 많았던 시절을 잘 살았구나 하는 소회도 해본다. 지나온 세월 한결같이 자기자리를 지키고 가족을위해 헌신 해온 집사람이 있었음을 감사한다. 아직도 비교적 건강하게 같이 지나고 있음은 축복이다.

골든클럽 모임을 통하여 친숙한 동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동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 생각하고 있다.

[정리: 김병순(사회82)]



지중해 크루즈여행을 떠나보자!

■ 이영범 (공대72)

크루즈여행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친구들과 함께하는 최적의 여행입니다. 또한 육로 여행과는 달리 매일 짐을 싸서 이동해야 할 필요 없이 배에 머무르면서 여러 곳을 관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를 출발해서 그리스 아테네를 돌아오는 지중해 여행은 언제 가 보아도 다시 오고 싶은 로마와 아테네의 관광뿐 아니라 육로로 접근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잘 보전된 고대시대, 그리스시대, 로마 시대 그리스 중세시대 유적지들을 둘러 볼 수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역사를 한번에 체험하는 독특한 경험을 선사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둘러 볼 섬들을 한 번 소개해 볼까요

미코노스 섬

아테네 아래에 위치한 이 섬은 풍차와 흰색으로 건축된 건물들의 아름다운 풍경이 우리를 반겨 줍니다. 기원전 3000년전 유적이 발견된 이 섬은 산토리니 섬과 함께 지중해의 유명한 휴양지입니다. 리틀이태리 해변가에서 그리스 타파 음식과 맥주를 즐기는 낭만도 우리의 여행을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델로스섬

크루즈가 미코노스 섬에 도착하면 조그만 배로 3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델로스 섬 관광도 빼 놓을 없는 Excursion 입니다. 아폴론과 아르테미스가 태어난 곳이라는 신화의 주인공인 이 섬은 기원전 1000년에 번성한 도시를 이룬 고대 그리스 문화의 중심이며 BC 5세기 경 페르시아와 대항하기 위해 만들었던 델로스동맹의 산실이 되었던 역사의 유래가 깊은 섬입니다.



산토리니 섬

죽기전에 한번은 꼭 가봐야 한다는 모든 관광객들이 버킷리스트에 들어 있는 섬입니다. 꽃과 하얀 건물과 파란 지붕과 어울어져 섬을 덮은 아름다운 건축물들을 보면서 힐링이되는 기분이 듭니다. 조금 여유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지만 많은 사람들이 해변가에서 섬 위까지 올라가는 케이블카에 너무 몰려 시간 지체가 심하고 특히 내려 올 때는 케이블카를 타고 내려 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나귀 타고 올라가는 특이한 경험도 즐길 수 있고 남은 시간은 경치 좋은 곳에서 사진도 찍고 경치 보며 점심식사를 여유있게



하는 것도 좋을 듯.

몰타 섬

선사시대 유적지, 약 기원전 3000년경 이집트보다 먼저 세워진 신전 그리고 십자군전쟁에서 활약한 기사단이 정착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호송하다가 바다에 풍랑을 만나 배는 파선하고 승선한 사람들은 모두 구조된 몰타섬(성경에 나오는 멜리데 섬)은 방어 진지를 포함해 로마시대부터 중세시대까지의 너무나도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황홀함을 더해 줍니다. 크루즈에서 내려서 도시 정문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로 입구에 도착해 제일 큰도시 Valletta에 City Gate를 들어서면 성바나바 성바울 많은 건축물들이 있지만 성요한 공동 대성당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감명을 줍니다. 이 섬의 다른 도시인 옛 몰타 왕국 수도였던 왕좌의 게임 촬영지인 Mdina (임디나)도 방문해도 좋을 듯하나 방문한다면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 택시로 왕복하면 좋을 듯



이탈리 남부에 위치한 시실리 섬

메시나

다 둘러 볼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대략 볼 수 밖에 없는 섬입니다. 택시를 대절해서 메시나의 중요한 곳을 대충 둘러본 후 그 대절한 택시를 이용해 타오르미나까지 왕복할 것을 강력 추천합니다.

타오르미나

이탈리아 시실리섬 남부에 숨겨진 보물처럼 아름다운 타오르미나는 로마 유적지와 신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는 해변은 정말로 아름답다. 신전까지 올라가는데 힘들면 당나귀를 타고 유유히 올라가면 됩니다. 기타 다른 지역도 정박하며 나폴리 폼페이 등도 추가할 수도 있는 크루즈 여행이다. 지면상 더 자세한 소개는 줄이기로 합니다.

크루즈 여행에서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하며 여유로운 시간과 저녁에 펼쳐지는 보로드웨이 뮤지컬을 관람하며 문화생활을 즐기는 매력은 다른 여행과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도 친구들과 매일 "여유있게" 만찬을 즐기는 기쁨은 어디에 비할 수 있으랴!

Myrtle Beach Golf Trip

■ 홍종만 (공대64)

16명의 골든클럽 회원 및 가족이 12월 8일부터 13일까지 Myrtle Beach 겨울 골프여행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예년에는 15인승 밴을 빌려 운행했으나, 운전 부담과 집결지 주차, 운전자 확보 등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이번에는 각자 승용차를 이용하고 자발적인 카풀을 통해 큰 부담 없이 여행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근래 조성된 North Beach Resort에서 5개의 방과 2개의 방이 있는 콘도를 렌트하여 8가구가 함께 생활하면서 아침과 점심은 Legend 골프장 패키지에 포함된 뷔페 식사로 해결하고, 저녁은 큰 부엌에서 Beef Steak, Spare Ribs, Snow Crab, Oyster 및 김치찌개 등 여성 회원들 봉사로 자취하면서 5박 5일간 합숙했습니다. 와인, 위스키, 맥주도 많이 마셨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날씨는 뉴욕보다 평균 15도 정도 높아 아침에는 다소 쌀쌀했지만, 해가 나오면 골프치기에 쾌적한 기후였습니다. 수요일 하루는 동부 전역이 폭풍우 영향권에 들어가 골프를 치지 못해 Raincheck을 받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오히려 하루 쉬는 날이 전화위복이 되어, 한 분은 Ambulance를 불러 응급실에 다녀오고, 다른 한 분은 빠진 크라운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행 중 의대 58년 입학 고령자 4분은 골프도 잘 치시고 성격도 원만하여 함께 지내는 동안 크게 모범이 되었고, Snow Crab과 Fresh Oyster 별식 구매 비용을 부담해 주셔서 이를 동안 맛있게 즐겼습니다. 첫날 Moorland 골프장은 Pete Dye의 Target Course로 대부분 호수를 끼고 있어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도전적인 Raised Green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둘째 날 Heritage Club은 옛날 Plantation이었던 골프장으로, 아름다운 호수와 300년 넘는 고령의 오크 나무로 유명합니다. 옛 노예들의 무덤에서는 Plantation Song이 은은하게 들려오는 듯한 감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 Sunset Beach에 있는 Oyster Bay Golf Link는 바다를 끼고 있어 바닷물을 넘겨 치는 도전적인 코스로, 물에 나와 Sun-tanning 하고 있는 Alligator도 자주 마주쳤습니다.

이번 합숙여행을 통해 선후배 간 우의가 더욱 돈독해지고, 부인들끼리도 오래 사귄 이웃처럼 스스럼없이 지내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참가회원: 권영대/임은재 권정덕/홍선경 윤선구 이대영/이병련 최준희 한태진/한용희 홍종만/홍예경 고용하/고채욱 임필재(2)



참으로 재미있었던 골프여행

■ 윤선구 (치대61)



2024년 Myrtle Beach 여행을 돌아봅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날씨가 포근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두툼한 모자를 썼던 기억인데 올해는 입고 있던 겉옷을 벗었습니다. 회장님 인도하에 모든 회원들이 제 시간에 도착하여 각자의 방으로 가서 짐을 모두 정리하고 저녁을 아주 잘 먹고 잠 자리에 들어서 피곤한 몸을 평안함으로 잘 쉬었습니다. 둘째 날 새벽같이 골프장으로 가서 기분 좋게 운동을 시작했고요. 여자분들은 그들대로 조를 짰고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편을 만들어서 첫날부터 신나게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모두들 몸 컨디션이 좋아 보였습니다

저는 3개월 전부터 몸무게를 줄여가면서 컨디션 조절을 하기위해 약 8파운드를 줄여서 날씬한 몸을 만들어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골프장으로 갔는데요. 아무래도 드라이브샷 거리가 저의 기대를 아주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퍼팅은 왜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투펫 이상은 안 한다는 철통 같은 결심을 첫 홀부터 깨져 버렸습니다. 거기다가 같이 치시던 임필재 선생은 20피트 나되는 먼 거리의 홀을 그것도 그린 밖에서 원펫로 넣으셔서 나의 새로 마련한 사백 불짜리 퍼터가 참으로 원망스러웠습니다. 또 권영대 선생 불은 다단계 미사일 같았는데요. 일단 쳐서 공중에 뜬 불은 그때 다시 한번 발사되는 미사일 같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며 최준희 선생은 탄복을 하시더군요. 또 최 선생은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서 별로 힘 안 들이고 치는데 꼭 가야 할 것으로 불이 가는 것이 술 취한 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으로 재밌었습니다 우리들의 미남 동문 이대영 선생 부인께서 건강이 조금 불편하셨지만 거뜬히 일어나서 함께 저녁을 같이한 기쁨이 있었으며 아주아주 즐거운 골프 여행이었습니다 나는 집에 오니 집사람이 왜 이렇게 살이 쪼냐고 따지는 바람에 혼났습니다. 무려 6파운드가 늘어났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로 맛이 좋았던 저녁 식사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부인님들께 감사 감사 말씀드립니다.

회원 명단 (111명 / 2024-12-25)

강교숙	김상만	배상규	윤상영	이흥빈	최학주 한민우 한영오 한태진/ 한용희 허용선 허유선 홍정표 홍종만/ 홍예경
강에드	김승호	성기로	윤재욱	임도혁	
강영선	김영덕	손갑수	윤종숙	임호순	
계동휘	김영만	손경택	윤현남	정도현	
고애자	김우영	손대홍/	이강홍	정수일	
곽상준	김익성	남종현	이민제	조달훈/	
곽선섭	김정필	손옥화	이상무	조승자	
곽승용	김창수	송근숙	이상원	정해민	
권문용	김충정	송웅길/	이승준	조상근	
권정덕/	김치갑	송현자	이 준	주재양	
권영덕	김태일	송학린	이대연	주재양	
권영대	김한중	송혜순	이대영	진봉일	
권태전	김현중	신진식	이영범	천병수/	
금영천	노승만	신응남	이용대	천종화	
김광수	노용면	오순문	이위곤	최구진	
김광현	민준기	오용호	이전구	최병우	
김동건	박기환	오인석	이종대	최순채	
김문경	박상원	우규환	이종석	최준희	
김문언	박준구	유무영	이준행	최진영	
김병순	박희병	윤선구	이행순	최한용	

2024년 연회비 납부 명단 92명 / \$9200 / 2024-12-25

강에드	김문언	민준기	신진식	이승준	조달훈	한용희 허용선 허유선 홍지복 홍선경 홍종만 홍정표
강영선	김병순	박기환	오순문	이영범	조승자	
계동휘	김상만	박상원	오용호	이용대	조상근	
고애자	김영덕	박준구	이위곤	이전구	주재양	
곽선섭	김영만	박희병	오인석	이종석	진봉일	
권문용	김우영	배상규	우규환	이종대	천병수	
권영대	김익성	성기로	윤상영	이 준	천종화	
권정덕	김정필	손경택	윤선구	이행순	최병우	
권태전	김종울	손갑수	윤종숙	이흥빈	최준희	
금영천	김태일	손대홍	윤재욱	임도혁	최학주	
김광수	김한중	송근숙	이강홍	임호순	최한용	
김광현	김현중	송학린	이대연	주상선	한민우	
김동건	남종현	신응남	이대영	정수일	한영오	
김문경	노승만	신두식	이상원	정해민	한태진	

[2025]
정수일
곽선섭

2024년 후원금 기부 명단 (30명 / \$13110 / 2024-12-25)

강에드 200	김종울 200	오용호 300	임호순 300	한태진 500
계동휘 300	김한중 300	이강홍 200	정수일 300	홍종만 1000
곽선섭 400	노승만 100	이위곤 100	정해민 1000	
권정덕 300	성기로 500	이전구 1000	주재양 210	
금영천 300	손경택 1500	이종대 200	최상림 2000	
김광현 500	신두식 200	이 준 100	최준희 400	
김문경 200	신진식 300	이행순 200	최한용 200	

2024년 입회비 납부 명단

한민우 200 이위곤 200
노승만 200

발전기금 기부명단

이준행 10,000

골든클럽 회비 납부 양식

이 회비 납부 양식을 Check (payable to **SNU Golden Club**)와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주소: **SNU Golden Club**, 44 Macintyre Lane, Allendale, NJ 07401

성명: (한글)

(영문)

생년월일:

입회비 \$200

단과대:

학과:

입학년도:

졸업년도:

연회비 \$100

전화번호:

Email:

후원금 (\$))

주소 (Home):

골든클럽 2024년 행사 일람 (2024-10-25)

1월	24일 (수)	Zoom 경제 세미나 (14명 참석)
2월	22일(목)	편집위원 운영위원 간담회
3월	21일 (목)	Hiking
	23일(토)	신년교례회 - Double Tree Hotel, NJ
4월	25일(목)	Golf Outing -Sunset Valley Golf Club (36명참가)
5월	23일 (목)	Hiking (6명 참가)
6월	6일(목)	Golf Outing - Split Rock Golf Club (45명참가)
	27일(목)	Hiking
7월	11일(목)	Golf Outing Wallkill Golf (29명참가)
8월	15일 (목)	Golf Outing (33명참가)
	22일(목)	골든클럽 피크닉 -Alpine Pavillion (150명 참가)
9월	12일(목)	Golf Outing-Hudson Hill Golf Club(27명 참가)
	26일(목)	Hiking
10월	12일(토)	동창회 추계골프대회-Split Rock (21명)
	17일(목)	Minnewaska Lake 단풍관광 & 하이킹
	31일(목)	Golf Outing - Sunset Valley Golf Club (30명)
11월	14일(목)	Hiking (4명)
12월	7일(토)	뉴욕지역동창회 송년회 -Double Tree Hotel
	8일-14일	Myrtle Beach Golf Trip
3월	22일(토)	2025년 신년교례회-Hilton Hotel Meadowlands



1월 생일을 축하합니다.

- 강영선 (공대50)
- 곽선섭 (공대61)
- 권영대 (공대69)
- 권태전 (사대54)
- 김광수 (공대72)
- 손경택 (농대57)
- 윤선구 (치대61)
- 정도현 (공대57)
- 한용오 (대학원)
- 허유선 (생과83)
- 이위곤 (공대68)

Zelle 사용안내: 골든클럽에 회비/후원금/참가비등을 Zelle 로 납부하실 분은 **keiusainc@gmail.com** (SNU Golden Club)에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때 message란에 영문이름과 내용을 꼭 적어주시기 바랍니다.